

배우 이문식·연출가 남인우 “나이 든 배우가 10대 연기”

연극 ‘소년이 그랬다’ 내일 개막...이문식, 5년만에 연극 무대
소년↔형사 1인2역...남인우 연출 “2011년 초연 그대로 살려”

“배우로서 욕심이 났어요. 이 시기에 해볼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죠.”(이문식)
“나이 든 배우가 10대를 연기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꿈을 이뤘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완성된 거죠.”(남인우 연출가)

배우 이문식이 5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 연극 ‘소년이 그랬다’에서 1인2역을 소화한다. 2011년 초연을 맡았던 연출가 남인우가 이번에도 연출한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다시 선보이는 ‘소년이 그랬다’는 호주에서 일어난 실화를 극화시킨 작품으로, 원작 ‘더 스톤즈(The Stones)’를 한국 현실에 맞게 재창작해 초연 당시 호평을 받았다.

장난을 하면서 육교 위를 올라간 중학생 ‘민재’와 ‘상식’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자동차 운전자가 숨지게 되고, 두 소년과 두 형사가 만나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인2역 이문식은 20세가 넘는 나이 차를 넘나들며 소년과 형사를 오간다. 15살 중학생 ‘상식’은 42살 형사 ‘정도’가 되고, 13살 중학생 ‘민재’는 29살 형사 ‘광해’가 되기도 한다.

“무대는 NG가 없기 때문에 긴장된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이문식은 “대본을 보니까 배우로서 욕심이 났다”고 했다. “주제도 그렇고 한번 해볼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제 애들이 중3, 고3인데 비슷한 나이이고 의미 있는 작품을 해보아야지 않나 생각했어요.”

50대인 이문식은 40대 형사보다 10대 소년의 역할이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공사장 같은 구조물로 이뤄진 무대를 10대 소년처럼 중형무진 뛰어다니는 그는 “미리 알았으면 도전을 안 했다. 대본에는 똘다고 안 나와 있더라”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소년에서 형사로 변신하는 건 ‘리듬의 차이’라고 했다.

“(웃) 지퍼 하나를 올리고 내리면, 아이가 똘다가 어른이 되죠. 사실 완벽할 순 없고 허구의 인물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인데, 처음엔 10대 애들처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출님이 ‘10대를 흉내 내려고 하면 오판이다. 10대 감성을 말해야지, 10대 목소리를 낸다고 똑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바꿨죠.”

남인우 연출가는 이문식에 짝짝 놀랐다고 했다. “처음에는 10대가 가능하겠냐고 엄살을 피더니, (오디션에서) 순식간에 바뀌는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배우라고 감탄했죠”

남인우 연출가는 “초연 때부터 1인2역으로 구상했고 나이 든 배우가 10대를 연기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꿈을 이루지 못했더니 ‘중년의 배우가 10대처럼 엄청 뛰어다니고 이미 성장한 사람들이 청소년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서 내 청소년은 어땠나, 내가 잊은 건 뭔가, 내가 봐야 하는 청소년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10년이 지난 만큼 초연 때와 달라진 점은 몇 개.

남인우 연출가는 “스태프는 동일하지만, 배우가 바뀐 만큼 질감이 바뀌었다”며 “그때는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했다. 2011년 한국 상황에 맞게 각색하고 연출했고 관객들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그때의 청소년들 이야기를 2021년 현재로 바꾸느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2011년을 그대로 살리기로 했죠. 이를테면 ‘헬릿’은 15세기가 배경이지만, 인간의 본성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하다고 판단했죠.”

소년들은 돌을 던졌지만, 연극은 질문을 던

진다. 답례에 갇힌 질문으로 다소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남인우 연출가는 “10년 전 사건을 짚어 보면서 한국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문식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생각의 차이를 느끼며 저도 기성세대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인 이슈에서도 그 이면을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된다. 연극이 던지는 질문이 묵직하면서도 불순하다. 극 중 인물들이 질문을 던지며 대립하는데, 당면시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묵직한 주제이지만, 연극적 재미는 빼놓지 않았다. 남인우 연출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

싸인 청소년과 취조하는 형사, 연극적인 기호가 관객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다. 저도 배우들을 보며 감탄한다”며 “라이브 연주는 생동감을 준다.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참여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드리브의 제왕으로 꼽히는 이문식은 두 달여간의 연습에서도 실력을 펼쳤다.

그는 “11년 전 다른 배우일 때 만든 대본이고, 지금의 배우인 저희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 연습에서 가감 없이 했고, 에드리브를 하면서 대사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남인우 연출가도 “이문식 배우는 에드리브의 천재”라며 “말과 말 사이를 에드리브로 풀어내면서 배우도 인물에 근접해가고, 저도 배우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게 된다. 에드리브 80%는 제거했는데, 20%는 살렸다”고 웃었다.

지난 1992년 극단 한양레퍼토리에 들어가며 연극 무대로 연기생활을 시작한 이문식은 어느새 데뷔 30여년이 되어간다. 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운이 좋았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들어요. 항공대를 갔다가 한양대를 가고, 신방과를 가려다가 연극영화과를 갔죠. 졸업 후 연극을 해야 할 것 같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고 연봉 200~300만 원을 받고 생활이 위태위태했죠. 그러다가 영화 ‘공공의 적’, ‘달마야 놀자’를 찍게 됐어요. 돌아보면 운이 좋았죠.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는 도중, ‘소년이 그랬다’를 만난 것도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문식의 의미있는 도전과 변신으로 주목받는 ‘소년이 그랬다’는 오는 21일 개막한다. 서울 서계동 백성희정민호극장에서 공연한다.



유재석 수상 무시?...배우들 ‘연예인 병’ 비판

유재석의 수상에 대부분 자리에 앉아 박수조차 치지 않아

일부 배우들이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본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일부 배우들이 ‘연예인 병’에 걸린 듯이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구체적으로 누리꾼들은 TV부문 대상을 탄 유재석과 영화 부문 대상을 탄 이준익 감독을 대하는 배우들의 태도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당시 이준익 감독이 영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대다수 배우들은 기립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유재석의 수상에는 대부분 자리에 앉아 박수조차 치지 않았

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상식에 참석한 일부 영화감독들은 카메라에 모습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팔짱을 낀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배우를 포함한 영화계 인사들이 예능계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누리꾼들은 유재석이 수상할 당시 기립박수를 치며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넨 연예인은 참석자 75명 중 총 10여 명 정도라고 했다. 이 중 배우는 송중기, 이승기, 김소연, 엄기준, 김소현, 문소리, 김수현, 김선호, 김명대, 김현수, 신혜선, 나인우 등이 거뒀됐다.

이일화·한승연, 웹드라마 ‘인생덤 그녀’

다음달 3일 공개

배우 이일화, 한승연, 민찬기 주연의 웹드라마 ‘인생덤 그녀’가 다음 달 공개된다.

18일 화장품 유통 회사 리만코리아에 따르면 웹드라마 ‘인생덤 그녀’가 오는 6월3일 유튜브 채널 ‘tvN D 스튜디오’를 통해 공개된다.

‘인생덤 그녀’는 왕년에 잘나갔던 방문 판매의 여왕 ‘천만리’ 여사와 파워 뷰티 유튜버를 꿈꾸는 철없는 취준생 딸 ‘고리아’가 신비의 화장품을 바른 뒤 영혼이 바뀌며 벌어지는 코믹 뷰티 판타지 드라마다.

영혼 체인지로 몸이 바뀐 엄마와 딸이 함께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냈으며, 상대방의 삶과 직업을 경험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주인공 ‘천만리’ 역에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엄마 역할로 활약한 배우 이일화가 캐스팅됐다. ‘고리아’ 역에는 걸그룹 ‘카라’ 출



신 배우 한승연이 낙점됐다. 두 배우는 엄마와 딸로 출연해 실제 모녀 같은 찰떡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방탄소년단X퀸 콜라버 암시...신곡 ‘버터’

내일 전 세계 동시에 공개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퀸’이 방탄소년단(BTS)과의 협업을 암시했다.

19일 오전 퀸의 공식 계정 SNS에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퀸은 “Are you ready hey are you ready for this(준비됐나)”라는 글과 함께 “Another One Bites The Dust X #BTS_Butter”라는 문구를 올렸다.

아울러 과거 무대에 서서 열창하는 프레디 머큐리의 영상과 방탄소년단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새 디지털 싱글 ‘버터(Butter)’의 뮤직비디오 티저도 함께 첨부했다.

‘아너더 원 바이츠 더 더스트(Another One

Bites The Dust)’는 전 세계 총 700만장이 팔린 퀸의 히트곡 중 하나다. 존 디콘이 작사, 작곡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적 가사를 이유로 한때 금지곡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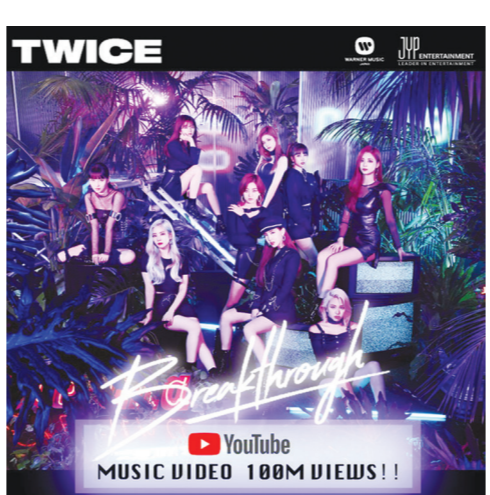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날 공식 SNS에 ‘버터’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올렸다. 19초 분량의 이 영상은 나란히 서 있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으로 시작해 팬케이크 위에 놓인 버터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영상 속 일곱 멤버는 슈트 차림으로 강렬한 비트에 맞춰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까딱이며 리듬을 탄다.

어깨와 머리만을 움직이는 가벼운 동작을 흑백 화면으로 처리한, 멋스러운 연출이 돋보인다.

트와이스, 전 세계 걸그룹 1억뷰 이상 뮤비 최다 보유

통산 17번째 기록 쌓아올려



트와이스가 ‘전 세계 걸그룹 중 유튜브 1억뷰 이상 뮤직비디오 최다 보유’ 신기록을 세웠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019년 7월 발매된 일본 싱글 5집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뮤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48분경 유튜브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하면서 통산 17번째 기록을 쌓아올렸다.

트와이스는 이로써 영국 여성 3인조 그룹 리틀 믹스(Little Mix)가 가지고 있던 최다 기록 16편을 넘어서며 전 세계 걸그룹 중 1억뷰 이상 기록 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다.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까지 14편에 달하는 모든 활동곡의 뮤직비디오에 3편의 일본곡 작품까지 더해 이같은 기록을 남겼다.

최근 1억뷰를 달성한 ‘브레이크스루’는 강렬한 안무와 시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곡이다. 해당 싱글은 발매 한 달 만에 일본에서 25만장 출하량을 넘기며 현지 레코드 협회로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을 입에 가져다 대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버터가 얹어진 팬케이크를 배경으로 “Get it, let it roll!”이라는 노랫말이 흐르면서 영상이 마무리된다.

오는 21일 전 세계 동시에 공개되는 ‘버터’는 댄스 팝 기반의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곡이다.

YG, 新 걸그룹 론칭 준비 중...‘블랙핑크’ 이후 5년만

YG엔터테인먼트가 새 걸그룹을 발표한다.

18일 YG엔터테인먼트(YG) 측은 “여자 신인 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YG가 올 하반기 새 걸그룹을 출시시킨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

기나 멤버 구성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YG가 걸그룹을 선보인다면 2016년 데뷔한 그룹 블랙핑크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이 된다.

앞서 블랙핑크 후속 걸그룹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베이

비 몬스터’(가명)으로 불렸다.

YG가 특허청에 ‘베이비 몬스터’와 약칭인 ‘베몬’까지 국영문 이름 상표 등록은 마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새 걸그룹의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닌지 추측이 일었다. 하지만 아직 그룹명이 확정되지 않았다.